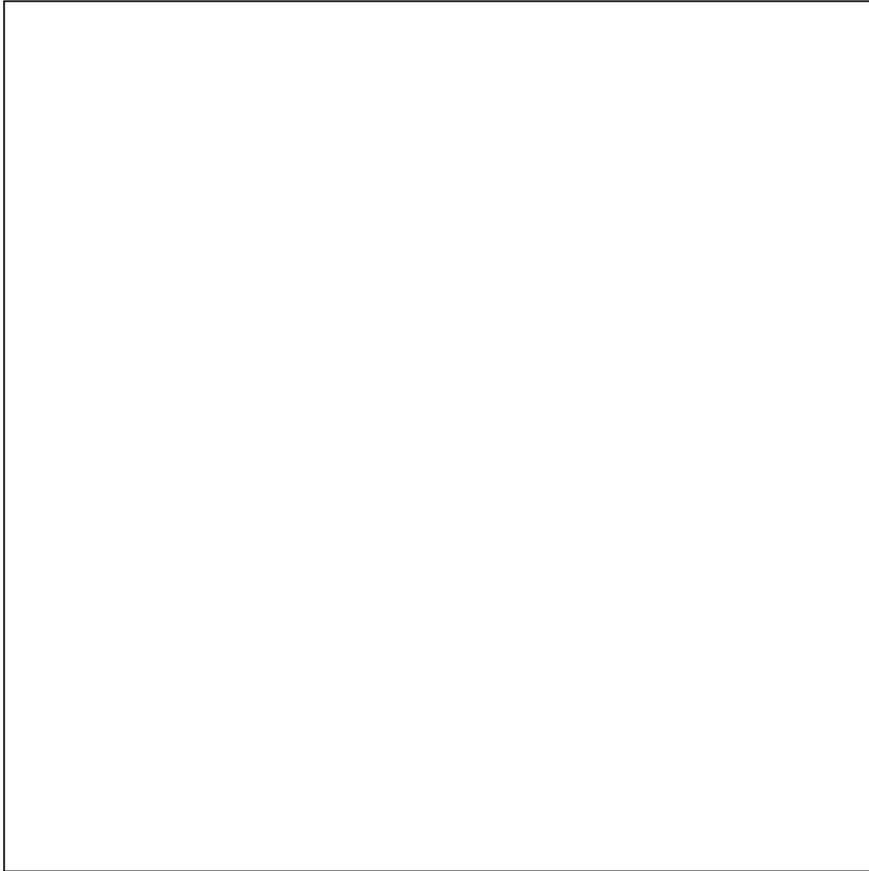


칼라이는 식물에게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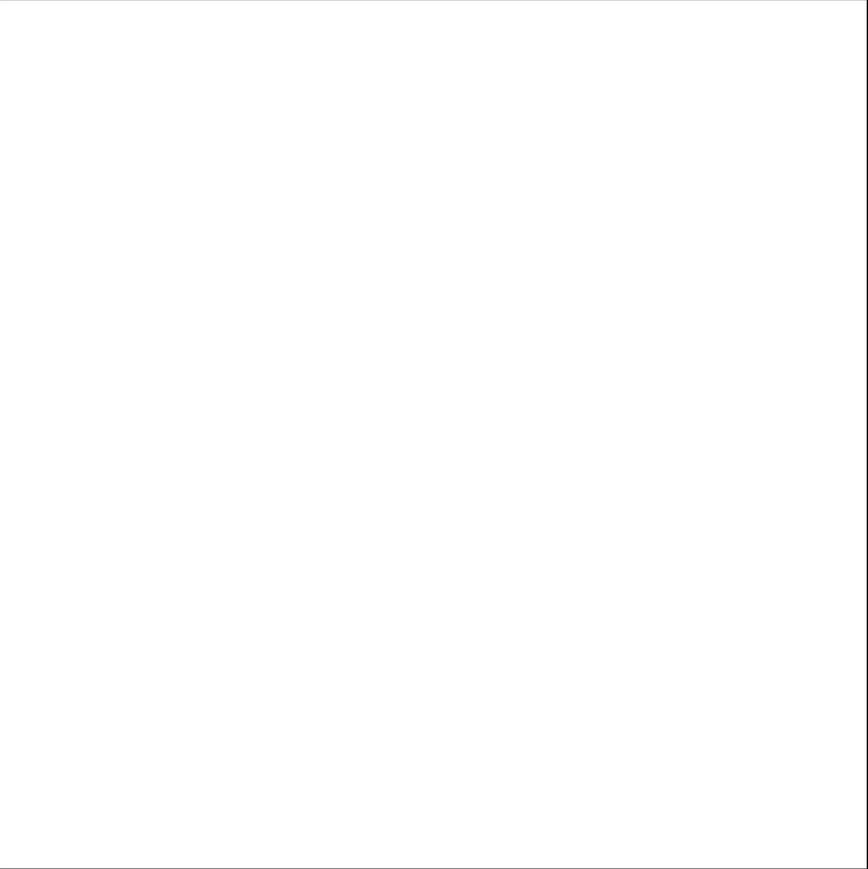
-  Ursula Nafula
-  Jesse Pietersen
-  Jong Yong Park
-  Korean
-  Level 2

(imageless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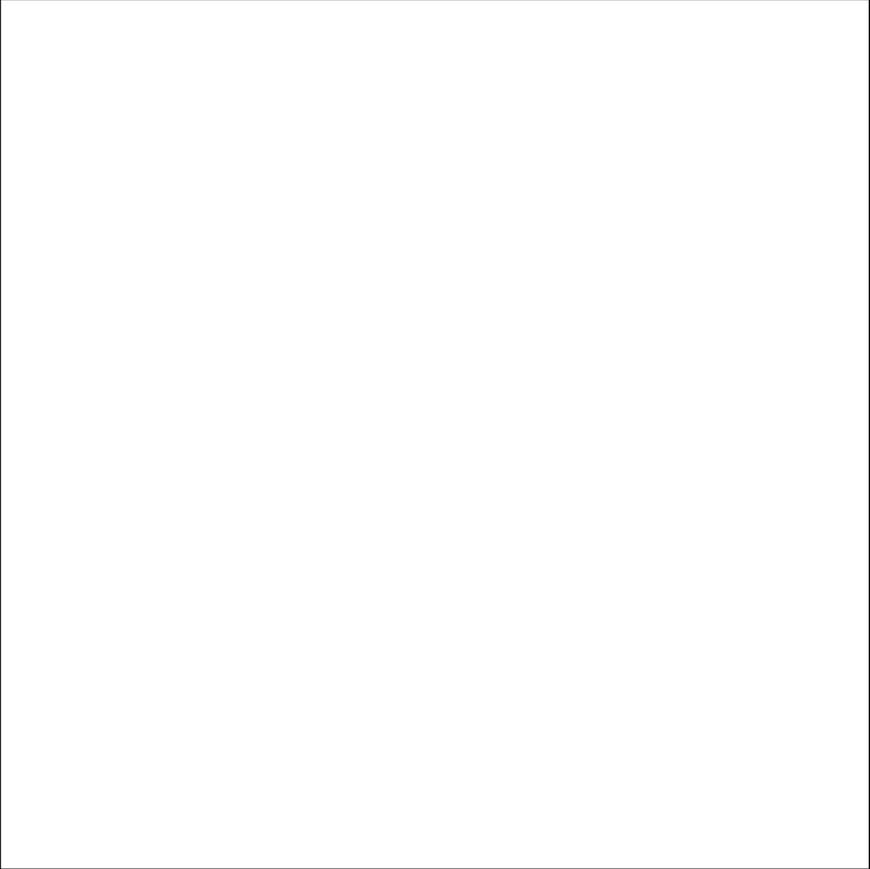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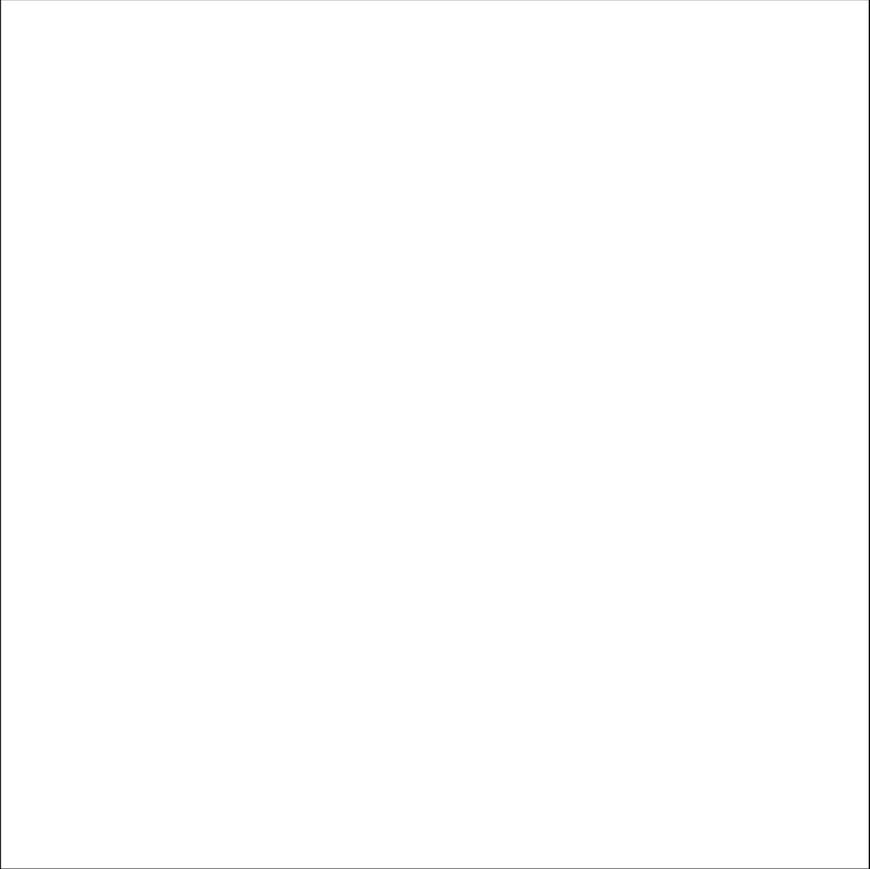
여긴 칼라이에요. 그녀는 일곱살이죠.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말 루복수로 “좋은 아이”라는 뜻 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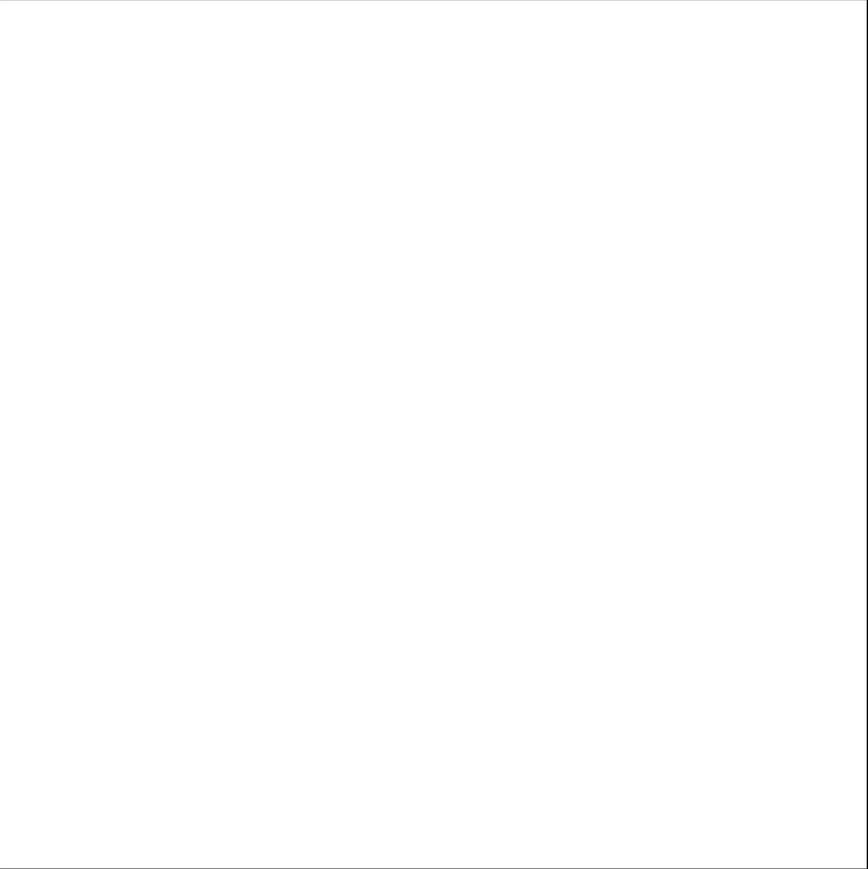
칼라이는 일어나서 오렌지 나무에게
말해요. “오렌지 나무야, 크게 자라서
우리에게 많은 잘 익은 오렌지를 주
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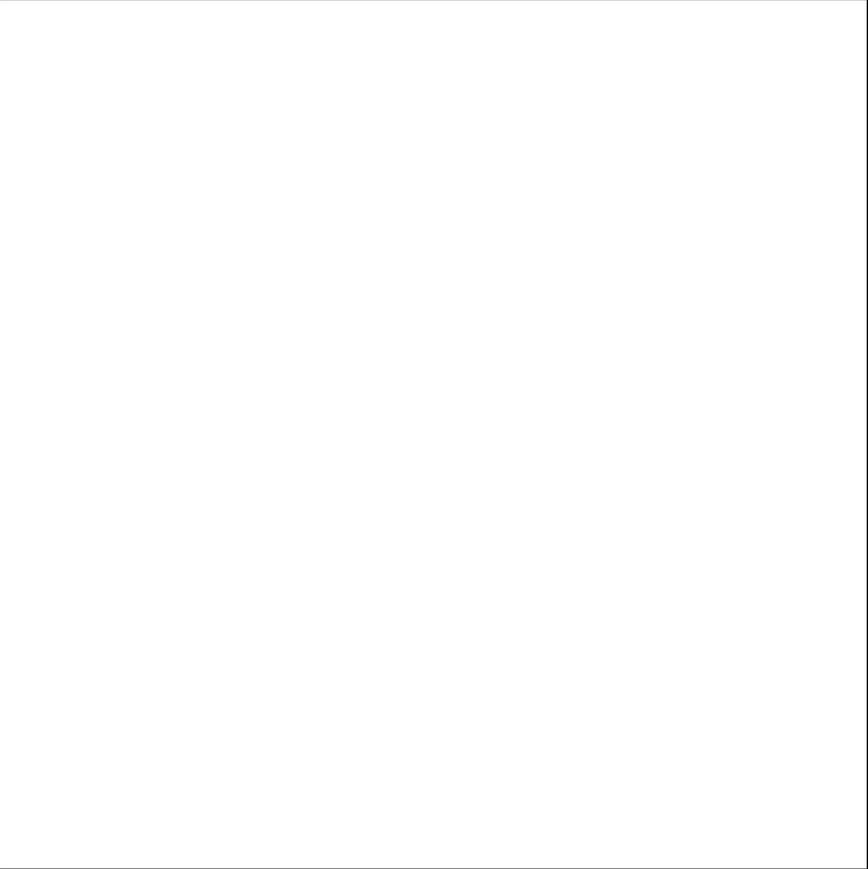
칼라이는 학교로 걸어가요. 가는 길에
풀에게 말해요. “풀아, 더 초록색으로
자라고 마르지 말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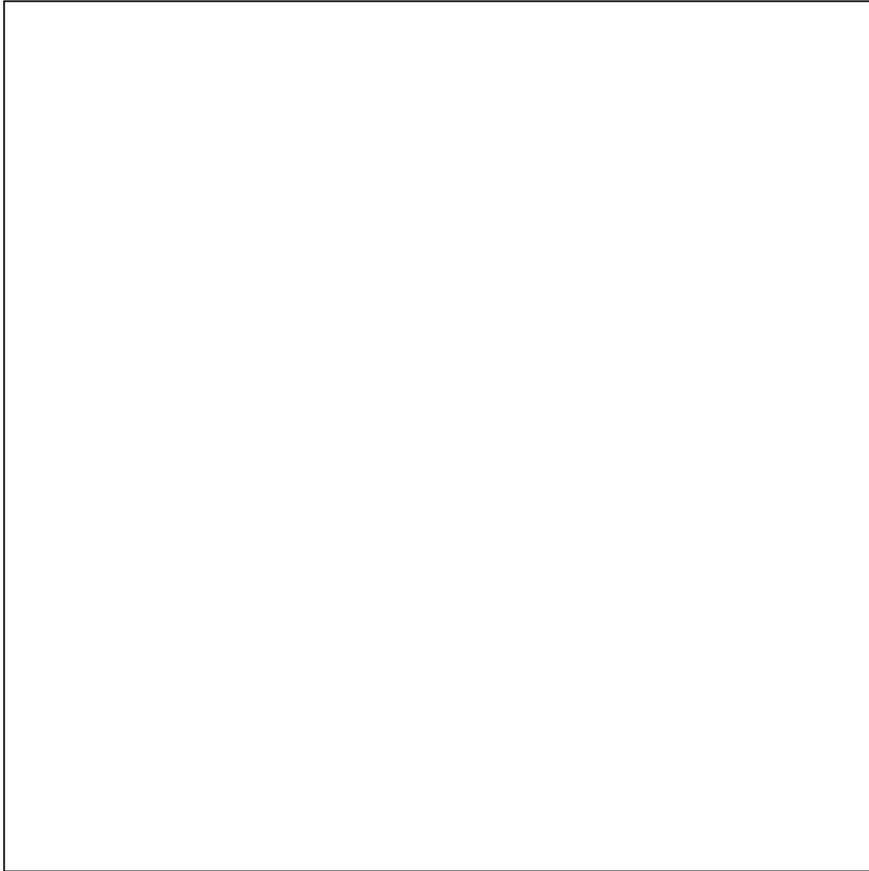
칼라이는 야생화를 지나쳐가요. “꽃들
아, 계속해서 피어나서 너희를 내 머리
에 꽃을 수 있게 해주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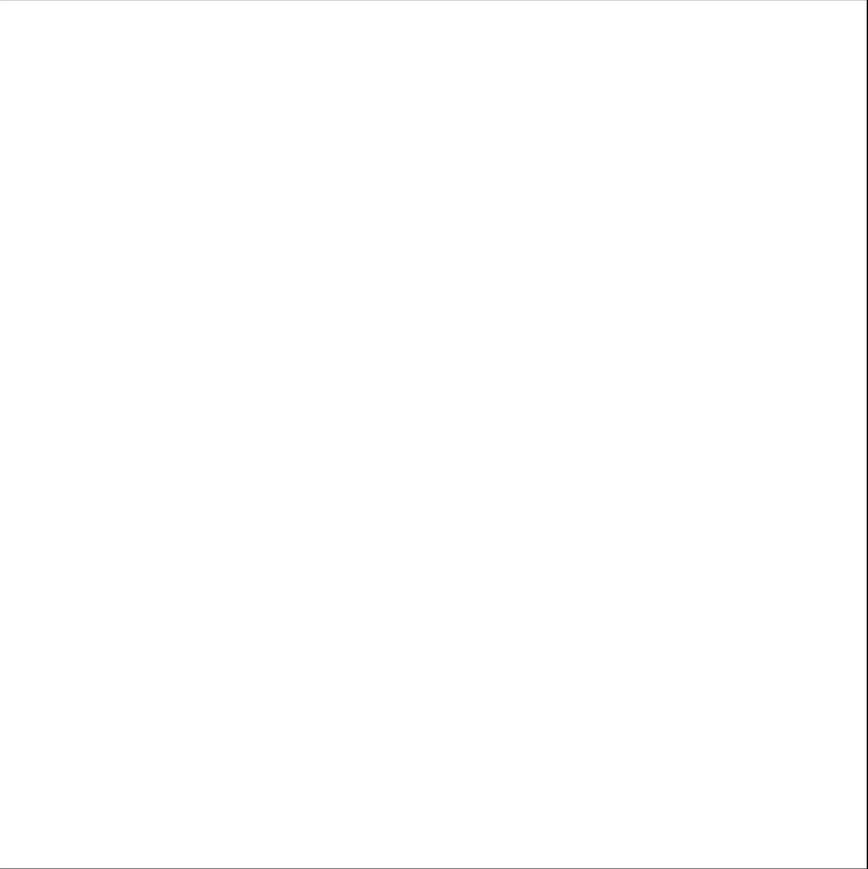
학교에서, 칼라이는 단지 중앙의 나무에게 말해요. “나무야, 큰 가지를 뺏어서 우리가 네 그늘 아래서 읽을 수 있게 해주렴.”



칼라이는 학교를 둘러싼 생울타리에
게 말해요. “강하게 자라서 나쁜 사람
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렴.”



칼라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오렌지 나무에게 들려요. “네 오렌지
는 아직 익었니?” 칼라이가 물어요.



“오렌지가 아직 초록빛이구나,” 칼라
이가 한숨을 쉬어요. “내일 보자, 오렌
지 나무야.” 칼라이가 말해요. “어쩌면
그 때는 네가 날 위해 잘 익은 오렌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Storybooks Canada

storybookscanada.ca

칼라이는 식물에게 말해요

Written by: Ursula Nafula

Illustrated by: Jesse Pietersen

Translated by: Jong Yong Park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Canada's many languages.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